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책 길라잡이

읽기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읽는 자체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읽기를 자동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기가 유창해지고 자동화되면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어휘를 활용하여 읽기 이해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은 자연스럽게 배움을 위한 읽기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읽기 유창성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학생에게는 읽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책은 생활 속 주요 “알맹이”를 모아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어보며 스스로 글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반복 읽기를 통해 읽기의 유창성을 기르고, 유창해진 글 읽기로 글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생활 속 주요 내용과 관련된 글감을 30차시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각 글감에 적용된 읽기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여러 음운 규칙을 아래와 같이 쉽게 제시하고 글감에서 적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읽기 규칙	내용
경음화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ㅌ, ㅃ, ㅆ, ㅉ’로 읽어요.
비음화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응/, ㄴ/은/, ㄹ/음/’으로 읽어요.
유음화	‘ㄴ’의 앞이나 뒤에 오는 ‘ㄴ’은 ㄴ/을/로 읽어요.
ㅎ 탈락	‘ㅎ’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을 소리 내지 않아요.
연음화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격음화	‘ㄱ, ㄷ, ㅅ,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읽어요.
구개음화	‘ㄷ, ㅌ’ 받침이 ‘이’와 ‘히’를 만나면 ‘ㅈ, ㅊ’로 읽어요
ㄴ 첨가	받침과 ‘이, 여, 요’가 만나 ‘니, 녀, 뇨’로 읽어요



셋째

하나의 지문을 3번 소리 내어 반복 읽어서 읽기 유창성 향상을 도움을 줍니다. 읽기가 어려운 학생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 읽어도 좋습니다.



넷째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상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전과 후 자신의 실력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평가 글감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교육과정 연계



교과 연계된 과목과 차시가 안내됩니다.

오늘의 읽기 규칙



본문 속 적용된 음운 규칙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00~150어절로 구성된 글감이 제시됩니다.

읽기 연습



스스로 읽은 만큼 표시합니다.

1일차 국어-경험 떠올리며 읽기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숲으로 → /수프로/

반짝이는 /반짜기는/

빛을 /비출/

읽으니 /일그니/



소리 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오.

작지만 밝은 빛, 반딧불

반딧불

윤동주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그믐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얼마 전에 윤동주의 '반딧불'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나는 이 시를 읽고, 지난여름 할머니 댁에서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걸 보며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떠올랐어. 그래서 반딧불이를 부서진 달 조각이라고 표현한 점이 정말 공감이 되었지. 작지만 밝은 빛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렇게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으니 시의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너도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니? 너는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

2000년 0월 0일, 서우가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서우가 민지에게 편지를 쓴 까닭을 써보세요.

[Blank box for writing the reason]

2 경험을 떠올리며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 좋은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 ①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이야기를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 ④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경험을 떠올려 이 시에 대한 감상을 써보세요.

[Blank box for writing impressions]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본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풀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답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맹이 목차

계획을 세우고 지키면서 학교 수업에 맞추어 활용하세요.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알맹이 시작하기		08~13쪽
1 일차	작지만 밝은 빛, 반딧불	연음화	16쪽
2 일차	노면 색깔 유도선	경음화	18쪽
3 일차	과학자처럼 탐구해요	경음화	20쪽
4 일차	창문과 거울	연음화	22쪽
5 일차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경음화	24쪽
6 일차	상추 가꾸기	ㄴ 첨가	26쪽
7 일차	기행문	격음화	28쪽
8 일차	태풍을 대비해요	비음화	30쪽
9 일차	카시오페이아자리 이야기	경음화	32쪽
10 일차	위기를 기회로	ㅎ 탈락	34쪽
11 일차	시각 이미지	연음화	36쪽
12 일차	동물 매개 치료	구개음화	38쪽
13 일차	설명하는 글쓰기	경음화	40쪽
14 일차	위도와 경도	격음화	42쪽



교과서 속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해 보자!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15 일차	석빙고의 비밀	비음화	44쪽
16 일차	빅데이터 전문가	유음화	46쪽
17 일차	아동 인권 운동가, 방정환	경음화	48쪽
18 일차	단열	격음화	50쪽
19 일차	문장 나라 두 친구	격음화	52쪽
20 일차	사회규범	경음화	54쪽
21 일차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ㅎ 탈락	56쪽
22 일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멈춰!	경음화	58쪽
23 일차	인권	유음화	60쪽
24 일차	행성과 별, 무엇이 다를까요?	연음화	62쪽
25 일차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ㅎ 탈락	64쪽
26 일차	우리나라 행정구역	연음화	66쪽
27 일차	사해의 비밀	비음화	68쪽
28 일차	달걀샌드위치 만들기	경음화	70쪽
29 일차	독도는 우리 땅	연음화	72쪽
30 일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	비음화	74쪽
알맹이 마무리			76~81쪽



부록

읽기이해 문제 정답지 / 교사용 평가 기록지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하기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 친구들과 여러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읽기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나의 읽기 실력을 알아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 같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옷나무

옷나무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르던 나무입니다. 주로 옷을 얻기 위해 기르는데, 옷은 옷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잿빛 진을 말합니다. 이 옷으로 가구나 나무 그릇에 칠을 하면 색이 곱고 진해지며 표면이 매끈해져서 보기 좋아집니다. 옷을 칠하면 열에 강해지고, 물에 젖어서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옷칠한 물건들을 칠기라고 부릅니다.

봄이 되면 옷나무에서 새순이 나와 이것을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새순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서 맛있지만, 옷나무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 옷나무를 직접 만지거나 옷이 들어간 음식을 잘못 먹으면 피부가 붓고 따갑거나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옷이 오른다' 또는 '옷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옷나무에는 독성이 있으니 만지거나 먹을 때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아름이

시작하기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 보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읽은 “옷나무” 사진이에요.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옷나무와 닮았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년
월

일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 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알맹이와 함께 공부를 마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읽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 나는 일주일에 3번 '알맹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유행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1일차 국어-경험 떠올리며 읽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숲으로 → /수프로/

반짝이는 /반짜기는/

빛을 /비출/

읽으니 /일그니/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작지만 밝은 빛, 반딧불

반딧불

윤동주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그믐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으러
숲으로 가자.

민지에게

민지야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얼마 전에 윤동주의 '반딧불'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나는 이 시를 읽고, 지난여름 할머니 댁에서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걸 보며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떠올랐어. 그래서 반딧불이를 부서진 달 조각이라고 표현한 점이 정말 공감이 되었지. 작지만 밝은 빛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렇게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으니 시의 내용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너도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니? 너는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

2000년 0월 0일, 서우가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서우가 민지에게 편지를 쓴 까닭을 써보세요.

2 경험을 떠올리며 시나 이야기를 읽을 때 좋은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

- ①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②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이야기를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 ④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경험을 떠올려 이 시에 대한 감상을 써보세요.

2일차 사회-우리나라 교통 발달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초록색 → /초록색/

발생한 /발생한/

따랐지만 /따라쫓지만/

고속도로 /고속도로/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노면 색깔 유도선

여러분은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에 그려진 분홍색, 초록색 선들을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2011년 5월에 국내 최초로 한국도로공사 안산 분기점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 3월경에 안산 분기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안산 분기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밤낮없이 고민하다 집에서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 냈습니다. ‘도로 위에 색칠하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평균 2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안산 분기점에서 6개월 동안 교통사고가 3건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안전은 높이고 혼란은 줄이는 도로 위의 길라잡이입니다.

* 분기점: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을 읽고,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세요.

()

2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안산 분기점에서 근무한 직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

3 다음 중 노면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각했는지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하늘을 보다가 무지개를 보고
- ② 산책하다가 여러 색깔의 꽃들을 보고
- ③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등 색깔을 보고
- ④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4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

3일차 과학-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과학자 → /과학자/

각자 /각자/

설정 /설정/

발전 /발전/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과학자처럼 탐구해요

과학자는 물질, 에너지, 생명, 지구, 우주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각자** 연구 분야가 다르지만,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어떤 탐구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탐구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과학자는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왜 어떤 식물은 더 빨리 자랄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 질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요. 예를 들어, ‘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서 더 빨리 자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요. 이때, 변인을 통제해야 해요. 빛의 양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실험한 후에는 실험 결과를 숫자나 그래프로 바꿔서 분석해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요.

‘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서 빨리 자란다!’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자들은 궁금한 것을 차근차근 알아가요.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탐구의 힘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과학자처럼 탐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① 모든 과학 탐구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 ② 과학자는 실험에서 여러 조건을 모두 다르게 해야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2 과학 탐구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하세요.

① 가설 세우기	② 결과 분석하기
③ 문제를 인식하기	④ 결론 내리기
⑤ 실험하기	

(→ → → →)

3 아래 문장에 맞는 과학 탐구 과정의 단계를 고르세요. ()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① 가설 세우기
- ② 결과 분석하기
- ③ 결론 내리기
- ④ 실험하기

4일차 도덕-갈등 해결 방법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자기**밖**에 → /자기**바**께/

거울에서 /거우**레**서/

울**음**을 /우르**물**/

마**음**속에 /마**음**소**게**/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창문과 거울

자기밖에 모르는 유창이는 모둠별 활동을 싫어합니다. 모둠 친구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유창이를 불렀습니다. “유창아, 왜 우니?” “역할극에서 제가 주인공 호랑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선생님은 유창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시고는 교실 창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뭐가 보이니?” 유창이가 바라본 교실 속에는 친구들이 즐겁게 웃으며 역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유창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유창이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교실 안 거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뭐가 보이니?” 거울 속에는 슬픈 표정의 유창이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창문과 거울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 친구를 바라보지 않고 거울 속 나 자신만 바라보면 교우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일지라도 마음의 창문을 열어 그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속 **거울에서** 나와 창문 너머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학교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을 읽고,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유창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창문과 거울 중 하나를 골라 쓰세요.

()

2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태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

- ① 경청
- ② 배려
- ③ 공감
- ④ 주장

3 보기와 같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써 보세요.

보기

‘다툼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한다.’

()

4 나를 돌아보고, 평소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매우 잘함은 3개, 잘함은 2개, 보통은 1개 색칠하기

5일차 미술-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역사 → /역싸/

돋습니다 /돋썸니다/

있도록 /인뜨록/

사용되었던 /사용되었편/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조사 및 연구하며,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고, 적합한 작품을 선택해 배치합니다. 또한,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를 준비하여 사람들이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돋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 혼례’ 전시를 준비할 때 큐레이터는 전통 혼례 의식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유물을 선정합니다.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의복, 장신구, 혼례상 차림, 신랑 신부의 장식품 등을 찾아 전시합니다. 그리고 혼례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준비해 관람객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시에서 혼례의 복식과 의식을 통해 옛날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큐레이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과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의 이름을 써보세요.

2 <현대 예술과 자연>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할 때, 큐레이터가 하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자연을 주제로 한 현대 미술 작품을 찾아 전시할 작품 선정
- ② 나무로 만든 조각, 숲을 그린 그림, 자연의 소리를 담은 설치 미술 선택 및 배치
- ③ 각 작품이 자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글 작성
- ④ 작품 제작 및 수정 · 보완

3 큐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
- ②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
- ③ 전시품 배치와 관련된 업무만 한다. ()

4 내가 큐레이터가 된다면 어떤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싶은지 써보세요.

6일차 실과-식물 가꾸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과 ‘이, 여, 요’가 만나 ‘니, 녀, 뇨’로 읽어요.
(‘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은 [리]로 읽어요.)

한여름 → /한녀름/

한여름 /한녀름/

바깥 잎부터 /바깥 닙부터/

일일이 /일리리/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상추 가꾸기

오늘 실과 시간에는 상추를 심어보고 가꾸어보는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상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 봄가을에 가꾸기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상추가 자라기 어렵지요. 상추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수시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어서 농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가꾸기 좋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로 사용되는 상추를 우리도 한 번 심어봅시다. 그럼, 상추 모종 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화분 바닥에 거름망을 깔고 배양토를 $\frac{4}{5}$ 정도 채워주세요. 심을 구멍을 파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상추 모종을 심습니다. 이때 상추 모종이 작고 여리니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다 심었으면, 상추 모종 위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주는 시기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30일 정도 지나면 상추의 잎이 적당히 자랍니다. 상추 잎이 적당히 자라면 상추의 **바깥 잎부터 일일이** 눌러 따서 쌈이나 반찬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기른 상추로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날까지 애정을 갖고 정성껏 가꿔봅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본문을 읽고, 다음 보기 중 상추가 자라기 적당한 계절을 모두 골라 O표를 하세요.

보기

봄, 한여름, 가을, 한겨울

2 다음 중 상추 가꾸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① 화분 바닥에 거름망을 깔고 배양토를 1/5 정도 채운다.
- ② 심을 구멍을 파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상추 모종을 심는다.
- ③ 상추 모종은 작고 여리니 모종 위에는 물을 주면 안 된다.
- ④ 물을 주는 시기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것이 좋다.

3 다음 중 상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어느 정도 자라면 잎을 따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가정이나 학교에서 키우기 좋다.
- ③ 상추는 병충해를 잘 입으니 반드시 농약을 주며 키워야 한다.
- ④ 상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7일차 국어-기행문 쓰기



오늘의
읽기규칙

‘ㄱ, ㄷ, ㅅ,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읽어요.

어떻게 → /어떠케/

사이좋게 /사이조케/

이렇게 /이러케/

좋고 /조코/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기행문

여행한 경험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행문을 쓰는 것입니다. 기행문은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적은 글입니다.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쓰지요. 기행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까요?

먼저, 여행하면서 다닌 곳, ‘여정’을 기록합니다. 여정을 쓸 때는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 ‘견문’을 기록합니다. 어떤 장소를 방문해 본 것과 들은 것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씁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 ‘감상’을 정리합니다.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데, 여행한 뒤에 한 다짐이나 반성, 앞으로 있을 계획이나 각오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사용한 입장권, 기록한 쪽지 등을 활용하면 기행문을 더 생생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행문으로 기록해두면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할 수 있어 **좋고**, 그때의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여행 정보를 줄 수도 있지요. 여러분도 즐거웠던 여행을 기행문으로 기록해 보세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기행문을 작성하면 좋은 점을 2가지 이상 써보세요.

2 기행문의 요소와 사용되는 표현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여정	•	•	‘~에 도착했다.’ ‘~(으)로 갔다.’
견문	•	•	‘~처럼’ ‘~같이’ ‘느끼다.’ ‘생각하다’
감상	•	•	‘~을/를 보다.’ ‘~을/를 듣다.’ ‘~이/가 있다.’ ‘~(이)라고 한다.’

3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서울을 다녀왔다. 아침 일찍 경복궁을 방문했다. 경복궁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다음에는 남산타워를 다녀왔다. 남산타워에서는 서울의 넓은 외곽을 둘러볼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은 정말 활기 넘치는 도시라고 느껴졌다. 저녁에는 청계천을 갔다. 깨끗한 물과 푸릇한 나뭇잎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보기

견문 , 여정 , 감상

- 1) 빨간색 밑줄 부분은 ()입니다.
- 2) 파란색 밑줄 부분은 ()입니다.
- 3) 초록색 밑줄 부분은 ()입니다.

8일차 사회-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이/응/, ㄴ/은/, ㅁ/음/’으로 읽어요.

닫는다 → /닫는다/

재미있는 /재미있는/

국물 /국물/

앞문 /앞문/



소리 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태풍을 대비해요

인천이는 뉴스에서 태풍 ‘독수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태풍이 온대요.”

“그래? 일기예보를 잘 봐야겠구나. 우선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해. 태풍의 경로를 제대로 알아야 더 잘 대비할 수 있거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지요?”

인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 보자. 창문을 꼭 **닫는다**. 그리고 되도록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인천이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풍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건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미리 제출한 이름들을 순서대로 붙이는 거래.”

“와, 신기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름들을 제출했는지 궁금해요.”

“그럼, 기상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태풍에 대해 더 알아볼까? 태풍의 이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재미있는**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단다.”

“네, 좋아요!”

인천이는 어머니와 함께 기상청 누리집에서 태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9일차 과학-북쪽 하늘 별자리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아름답다 → /아름답따/

놓았다 /노안따/

쉽게 /쉽게/

자랑했고 /자랑헨꼬/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카시오페이아자리 이야기

별자리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밤하늘에서 무리 지어진 별을 연결해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북쪽에서 눈에 띄는 별자리가 있어요. 바로 카시오페이아자리예요. 이 별자리는 우리나라 사계절에 항상 떠 있고 다섯 개의 밝은 별이 알파벳 대문자 ‘W’ 모양으로 늘어서 있어요. 좀 옆으로 넓게 퍼진 모양이지만 ‘W’를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카시오페이아는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왕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너무 자랑했고, 심지어 바다의 요정들보다 자신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대요. 이에 화가 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녀를 벌하기 위해 하늘에 묶어 놓았다고 해요. 카시오페이아는 하루의 반을 의자에 앉은 채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별을 받았답니다.

별자리는 계절과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카시오페이아자리도 계절에 따라 ‘W’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뒤집혀서 ‘M’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밤하늘을 볼 기회가 있다면,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찾아보세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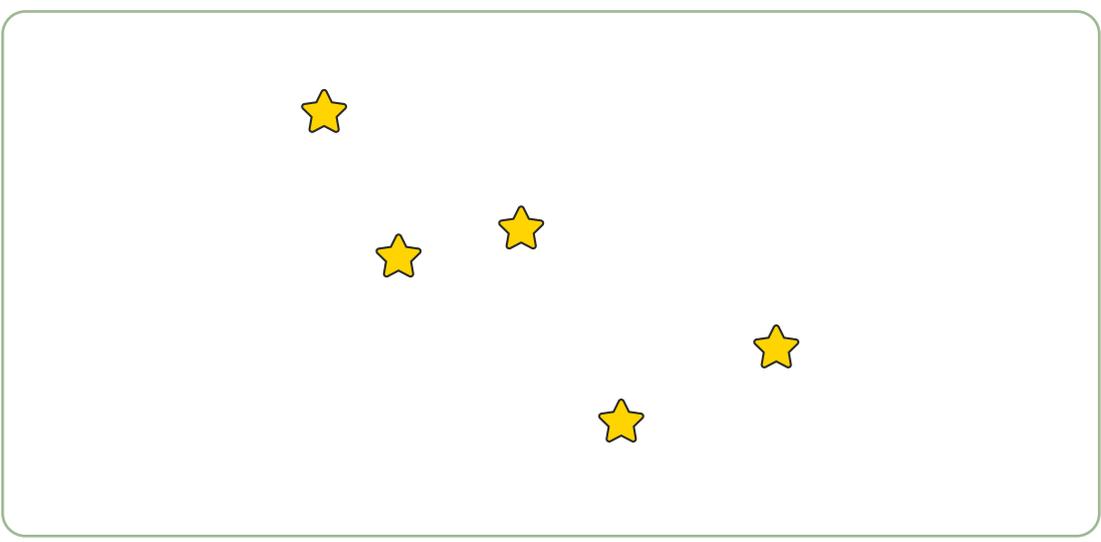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① 카시오페이아자리는 남쪽 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 ② 카시오페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왕비다. ()

2 별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밤하늘에 무리 지어있는 별을 연결해 이름을 붙였다.
- ②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붙여 지은 것도 있다.
- ③ 계절마다 다르게 보인다.
- ④ 같은 곳에서는 항상 똑같은 별자리가 보인다.

3 다음은 카시오페이아자리를 이루는 별입니다. 별끼리 선으로 연결하여 별자리를 완성해 보세요.



10일차 도덕-긍정적인 생활 태도



오늘의
읽기규칙

‘ㅎ’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을 소리 내지 않아요.

낱은 → /나은/

낱은 /나은/

괜찮아 /괜차나/

넣어 /너어/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위기를 기회로

미국이 낱은 유명한 육상선수 칼 루이스가 뛰어난 선수가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도시는 교통 상황이 너무나 나빠 교통지옥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교통 상황 때문에 언제나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들어 그의 교통수단인 모터사이클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시 자전거를 샀지만, 그것마저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나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라고 생각한 칼 루이스는 12km나 되는 먼 길을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합해 하루 24km를 매일 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도둑도 달리기만은 훔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이겨 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칼 루이스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여러분을 칼 루이스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칼 루이스가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뛰어난 육상선수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

2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 ① 불평불만
- ② 인내와 끈기
- ③ 노력하는 자세
- ④ 감사하는 마음

3 보기와 같이 나에게 필요한 긍정의 말 한마디를 써보세요.

보기

‘나는 무엇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

4 나를 돌아보고, 평소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매우 잘함은 3개, 잘함은 2개, 보통은 1개 색칠하기

11일차 미술-시각 이미지 알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눈으로 → /누느로/

어린이 /어리니/

있어요 /이쎬요/

만들어지고 /만드러지고/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시각 이미지

지하철과 버스의 노약자석에 붙어있는 시각 이미지를 본 적이 있나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노약자 이미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이미지, 임신한 여성의 임신부 이미지가 붙어있죠. 이처럼 시각 이미지는 **눈으로** 보고 전달하는 이미지를 말해요. 시각 이미지를 사용하면 말로 전달할 때보다 간편하고 재미있게 느껴져요. 또 많은 사람이 한눈에 의미를 알아볼 수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회 변화에 따라 시각 이미지도 변하고 있어요. 사회 환경과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각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기존에는 장애인을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뿐이었다면, 이제는 시각 장애인의 모습이나 심장 질환자 배려 이미지도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어린이** 동반자 이미지는 여성을 의미하는 치마를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람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시각 이미지도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어린이
동반자 이미지



중성적으로
수정된 이미지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시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한다. ()
- ② 실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 ③ 시대에 따라 더 다양해지고 발전한다. ()

2 시각 이미지와 그 의미가 맞도록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

•

상해자 우대석



•

•

시각 장애인



•

•

심장 질환자 우대석

출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국가표준(ks)

3 나만의 시각 이미지를 만들고 설명을 써보세요.

12일차 실과-동물의 이용



오늘의
읽기규칙

‘ㄷ, ㅌ’ 받침이 ‘이’와 ‘히’를 만나면 ‘ㅈ, ㅊ’로 읽어요

같이 → /가치/

닫혔던 /다쳤던/

붙이고 /부치고/

같이 /가치/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동물 매개 치료

동물 매개 치료란 동물과 사람의 상호 교감을 이용하여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개, 고양이, 말, 새, 돌고래와 같은 도우미 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며 심신의 재활을 기대할 수 있어 ‘펫 테라피’ 또는 ‘애니멀 테라피’라고도 한다.

치료 대상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 독거노인,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자, 장애인,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ADHD 환자 등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치료 효과는 첫째, 슬프고 우울해도 자연스럽게 웃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 서서히 말을 하게 된다. 셋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게 된다. 귀엽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붙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동물들이 사람의 열 마디 말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3일차 국어-설명하는 글쓰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목적 → /목적/

특징 /특징/

쉽게 /쉽게/

확실 /확실히/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설명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까요?

먼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떠올리고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합니다. 비교·대조 등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이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설명하는 글에 쓸 자료를 모읍니다. 유의할 점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믿을만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셋째, 설명하는 글에 알맞은 틀을 그리고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고,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글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추측하는 말이나 주장하는 말은 설명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블록 만들기 방법을 설명할 때는 ‘조립한다’ 보다는 ‘만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글을 검토할 때는 글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썼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4일차 사회-우리 국토의 위치



오늘의
읽기규칙

‘ㄱ, ㄷ, ㅅ,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읽어요.

적혀 → /저켜/

뜻하며 /프타며/

부딪힌 /부디친/

입학 /이팍/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위도와 경도

여러분, 지도 위에 그어진 가로선과 세로선을 찾아보세요. 그 선들은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가상의 선으로 가로선은 위선, 세로선은 경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선, 경선 끝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도, 경도입니다.

위도는 적도에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구를 가로로 똑같이 둘로 나눴다고 상상해 봅시다. 반으로 나눈 가로선은 적도이고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을 각각 90도로 나누어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로 표현합니다.

경도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본초자오선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세로선이며, ‘본초’는 근본과 처음, ‘자’는 북쪽, ‘오’는 남쪽을 뜻합니다. 즉 ‘자오선’이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은 선을 뜻하며, ‘경선’이라고도 합니다. 동쪽 180도까지를 동경, 서쪽 180도까지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대략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세요.

- ① 위선, 경선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인다. ()
- ②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로 표현한다. ()
- ③ 본초자오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세로선이다. ()

2 글을 읽고, 위도와 경도의 의미를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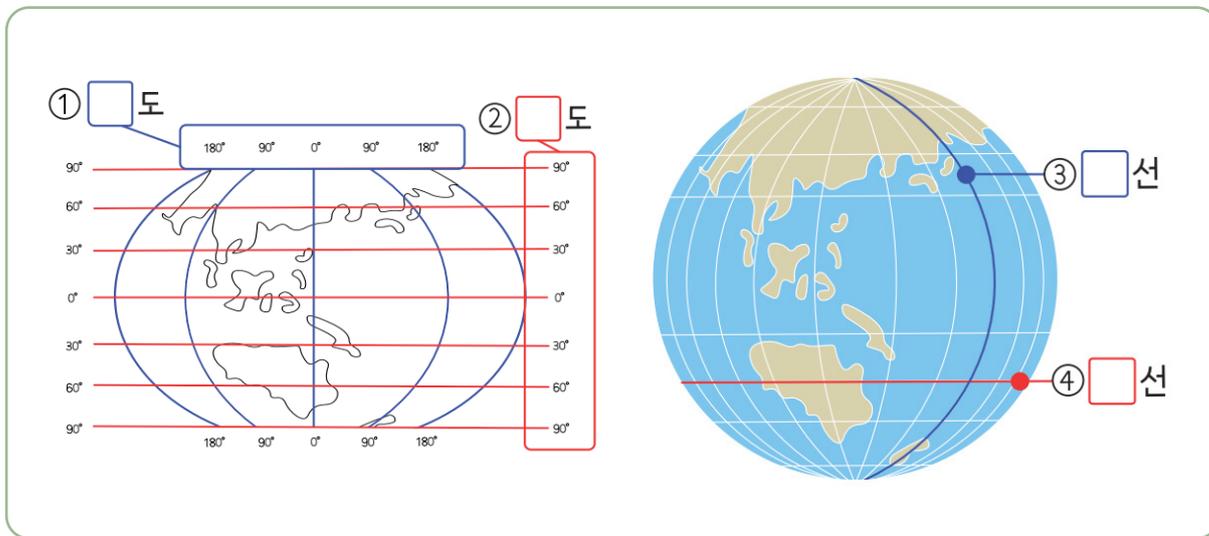
위도

어떤 위치가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경도

어떤 위치가 적도에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3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15일차 과학-열의 이동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응/, ㄴ/은/, ㅁ/음/’으로 읽어요.

녹는 → /농는/

옛날 /엔날/

없는데 /엄는데/

국물 /궁물/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석빙고의 비밀

채아는 경주에 사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석빙고’에 갔어요.

“할아버지, 석빙고가 뭐예요?”

“석빙고는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란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에서 두꺼운 얼음을 잘라 내어 이곳에 보관하면 한여름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었지.”

할아버지의 설명에 채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한여름까지 얼음을 보관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석빙고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단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거든. 이것을 대류라고 하는데, 더운 공기가 대류를 통해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지붕에 작은 환기 구멍을 만들었지.” 채아는 과학 시간에 배운 대류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석빙고의 지붕에는 잔디를 심어 태양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얼음은 벧짚이나 톱밥 등으로 덮어 **녹는** 걸 막았지.”

“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대류나 단열 같은 열의 이동 원리를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채아가 말했어요.

채아는 석빙고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6일차 실과-미래의 직업



오늘의
읽기규칙

‘ㄹ’의 앞이나 뒤에 오는 ‘ㄴ’은 ㄹ/을/로 읽어요.

논~~리~~적 → /놀리적/

관리할 /괄리할/

오늘날 /오늘랄/

논리적 /놀리적/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빅데이터 전문가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빅데이터’는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나 유튜브 비디오 등이 ‘빅데이터’에 해당하죠.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미래의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지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시장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도출하는 일을 합니다. 도출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기도 하지요.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첫째, 통계 자료를 잘 다룰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자료를 해석하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보를 재해석하는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넷째, 분석 과정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7일차 사회-인권 운동가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인권 → /인권/

인권 /인권/

문학가 /문학가/

인격 /인격/



소리 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아동 인권 운동가, 방정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다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요? 내일은 제102회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동 **인권** 운동가이자 아동 **문학가**입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고,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동 문학 연구 단체인 ‘색동회’를 구성하고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만들어 펴냈습니다. 1923년 5월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방정환 선생님이 발표한 어린이날 선언문의 일부를 다 함께 읽어봅시다.

-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 어린이에게 욕박지르지 마십시오.
-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이처럼,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한 아동 인권 운동가입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노력했는지 쓰세요.

()

2 다음 중 방정환 선생님이 한 노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 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 ②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 ③ 어린이를 위한 동요를 작사·작곡하였다.
- ④ 아동 문학 연구 단체인 '색동회'를 구성하였다.

3 1923년 '어린이날 선언'의 일부를 완성해 보세요.

-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 사람입니다.
-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 대접하십시오.
- 어린이에게 () 마십시오.
-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 해 주십시오.
- 어린이는 항상 () 가며 기르십시오.

4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신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

18일차 과학-단열



오늘의
읽기규칙

‘ㄱ, ㄷ, ㅅ,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읽어요.

똑**똥**한 → /똑**포**칸/

생각**해** /생가**개**/

따뜻**한** /따뜨**탄**/

비슷**해**요 /비스**태**요/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단열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열을 지키는 **똑똑한** 방법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단열'이라는 거예요. 단열은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특히 공기를 이용한 단열이 많답니다.

겨울에 입는 포근한 패딩 점퍼를 **생각해** 보세요. 패딩 안에는 보들보들한 솜이 들어있어요. 이 솜 사이사이에 작은 공기주머니가 우리 몸의 따뜻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줘요.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도 **비슷한** 원리예요. 뽁뽁이 안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가 찬 공기는 막고 **따뜻한** 공기는 지켜준답니다. 마치 창문에 보이지 않는 담요를 덮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중창의 비밀도 공기에 있어요. 이중창은 창과 창 사이에 있는 공기가 열의 이동을 막아서 건물 안을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유지해 줍니다.

공기 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티로폼, 나무, 플라스틱, 천 등 다양한 단열재를 사용해요. 단열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19일차 국어-문장 성분과 문장의 호응



오늘의
읽기규칙

‘ㄱ, ㄷ, ㅅ, ㅂ, ㅈ’과 ‘ㅎ’이 만나면 ‘ㅋ, ㅌ, ㅍ, ㅊ’로 읽어요.

역할 → /여칼/

대답했어요 /대다팠어요/

정확히 /정화키/

어색하지 /어새카지/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문장 나라 두 친구

문장 나라에 사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호응은 함께 문장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친구는 자신들의 **역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문장 성분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문장을 이루는 재료들이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같은 것들이지. 예를 들어, ‘고양이가 물을 마신다’에서 ‘고양이’는 주어, ‘마신다’는 서술어, ‘물을’은 목적어야. 내가 없으면 문장은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문장의 호응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내가 없으면 문장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내일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장은 어색하지? 서술어가 시제*와 맞지 않게 쓰였기 때문이야. ‘나는 내일 도착합니다.’ 또는 ‘나는 내일 도착할 겁니다.’와 같이 써야 해.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가 시간이나 의미에 맞게 연결되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지** 않게 주어와 서술어 등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만약 호응이 잘 맞지 않으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두 친구는 함께 힘을 모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멋진 문장을 만들어 나갔어요.

*시제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20일차 사회-사회규범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질서 → /질써/

갈등 /갈퐁/

일상생활 /일쌍생활/

자율적으로 /자울찌그로/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사회규범

사회규범이란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생각, 태도,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규범은 왜 필요할까요? 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고나 범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이런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회규범으로 도덕과 법이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사람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규범으로, 보행 신호에 건너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다르게 법은 강제성이 있어 사회 구성원 누구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덕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규범을 지킬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은 도덕과 법의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세요.

도덕	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 만든 사회규범이다.
강제성이 없다.	()이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을 따른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법을 따라야 한다.

2 도덕과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도덕과 법은 대표적인 사회규범이다.
- ② 웃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것은 도덕과 관련 있다.
- ③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법과 관련 있다.
- ④ 도덕과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3 내가 알고 있는 도덕과 법의 예시를 한 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도덕	예)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법	예) 보행 신호에 건너기

21일차 과학-균류의 특징



오늘의
읽기규칙



‘ㅎ’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을 소리 내지 않아요.

좋아하는 → /조아하는/

않아요 /아나요/

많은 /마는/

많이 /마니/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뉘요. 그럼 맛있는 음식으로 요리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버섯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류에 속해요. 식물학자들은 1969년까지도 버섯을 식물의 한 종류로 여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버섯을 채소의 하나인 식물로 생각하고 있죠.

버섯이 식물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유는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버섯은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뿌리와 줄기, 잎도 없고 꽃과 열매도 맺지 **않아요**. 또 버섯은 씨앗 대신 아주 작은 포자를 퍼트려서 번식하죠. 버섯이 동물로도 분류되지 못하는 이유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도망을 가거나 숨지도 못해서 동물도 아니지요.

버섯과 같은 균류에는 곰팡이도 있어요. 곰팡이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를 만들어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데 이용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식물과 동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요. 아직도 숨겨진 점이 많은 균류의 세상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22일차 실과-교통안전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위험성 → /위험쌩/

예방법 /예방뻘/

꽂고 /꼐꼬/

습관 /습뻘/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멈춰!

안녕하세요? 알맹이 모둠의 발표를 맡은 유창이입니다. 저희 모둠에서 조사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굣길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간 적이 있나요? 2020년 5월 20일 경기일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체감 안전 실태 조사’에서 22.7%는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33.1%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보행하면, 작은 화면에만 몰입하다 보니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해 평소보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어폰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교통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자신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목적지에 도달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 속 알맹이 모둠에서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2 글을 읽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작은 화면에만 몰입하다 보니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하다.
- ② 통화나 문자를 할 때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 ③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 ④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3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보행 중 통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보행 중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나는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매우 잘함은 3개, 잘함은 2개, 보통은 1개 색칠하기

23일차 사회-인권의 개념



오늘의
읽기규칙

‘ㄹ’의 앞이나 뒤에 오는 ‘ㄴ’은 ㄹ/을/로 읽어요.

권리 → /꺠리/

실내 /실래/

권리 /꺠리/

꺠력 /꺠력/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인권

유창이네 반 친구들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권박물관에 갔습니다.

“선생님, 인권이 뭐예요?” 유창이가 선생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란다. 인권은 피부색이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하는 권리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박물관 실내 1층에는 다양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창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포스터에는 노란색 새끼 오리들 옆으로 흰색의 새끼 백조가 외롭게 서 있고, ‘미움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다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창이는 이 포스터를 보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지도 눈길이 가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한자 ‘사람 인(人)’ 모양의 시소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 있고, ‘인권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구나!’ 연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힘이나 꺠력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24일차 과학-행성과 별의 정의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별은 → /벼른/

빛을 /비출/

밤하늘을 /밤하느를/

움직임을 /움지기물/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행성과 별, 무엇이 다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점들이 보이죠. 이 점 중 일부는 별이고, 다른 일부는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른 천체랍니다.

별은 우주에 있는 천체* 중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천체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지구에 아주 가까이 있는 별이죠. 반면에 행성은 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로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별 주위를 돌면서 별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여 밝게 빛나는 거예요.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하나랍니다.

별과 행성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움직임이에요. 별은 매우 멀리 있어서 사람이 별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답니다. 하지만 행성은 별보다 지구에서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밤하늘을 관측하면 많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별과 행성은 빛의 발생, 움직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면 밤하늘의 천체들을 더 정확히 구분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천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온갖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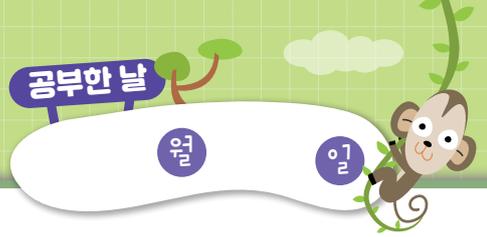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별은 스스로

을 만들어내는 천체이다.

2 다음 중 별에 해당하는 천체를 고르세요. ()

- ① 지구
- ② 태양
- ③ 달
- ④ 목성

3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 ②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점들은 모두 행성이다.
- ③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 ④ 별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 빛을 낸다.

25일차 국어-주장하는 글쓰기



오늘의
읽기규칙

‘ㅎ’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을 소리 내지 않아요.

많이 → /마니/

많은 /마는/

않으면 /아느면/

괜찮아 /괜차나/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우리는 전기, 물, 가스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를 절약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전기세와 가스비가 많이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고, 물을 절약하면 가정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공장에서 **많은** 연료를 태우게 되는데, 이때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환경을 해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쓸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②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 ③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끈다.
- ④ 에너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2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	•	지금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면, 후손들이 쓸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	•	에너지를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	•	전기, 가스를 절약함으로써 가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내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26일차 사회-우리 국토의 행정구역과 주요 도시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같은 → /가튼/

기준으로 /기주느로/

있어요 /이쨌요/

확인 /화긴/



소리내어 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여러분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특별시 1곳, 광역시 6곳, 특별자치시 1곳, 도 6곳, 특별자치도 3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17곳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랍니다.

행정구역이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지역의 명칭을 말해요.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특별자치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도에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자치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요.

또한 인구수, 지역개발정책 등에 따라 행정구역이 개편되기도 하지요. 2023년 6월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2024년 1월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행정구역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답니다. 개편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27일차 과학-용액의 진하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이/응/, ㄴ/은/, ㅁ/음/’으로 읽어요.

바닷물 → /바단물/

재미있는 /재미인은/

뜯니다 /뜸니다/

때문입니다 /때무닙니다/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사해의 비밀

사해는 아라비아반도 북서쪽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입니다. 사해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둥둥 **뜯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소금물에 있습니다. 사해의 물은 보통 **바닷물**보다 소금이 6배 이상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날씨가 무척 더워서 호수의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이 진하면 왜 사람이 물에 뜨는 걸까요? 그 해답은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나 메추리알을 소금물에 넣어볼까요? 소금물이 진할수록 물체가 더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에서 사람들이 저절로 뜨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이 뜰 수 있을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높은 사해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의 호수’라고 불립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주 특별한 몇몇 생물 말고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지요. 사람 역시 사해의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도: 소금기의 정도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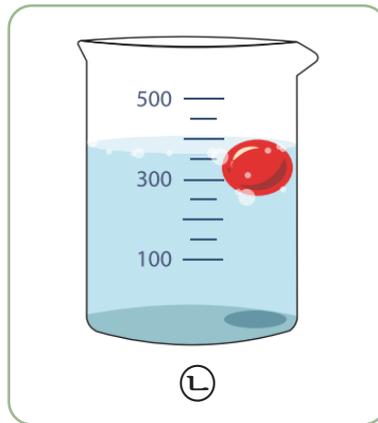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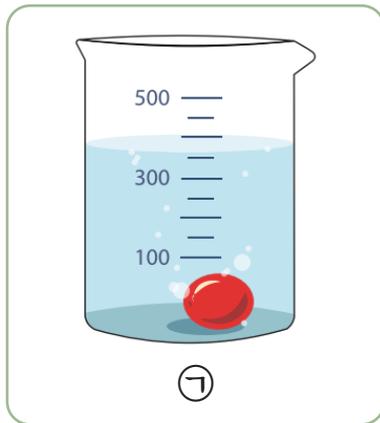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사해의 소금 농도가 진해진 이유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사람들이 소금을 계속 붓기 때문에
- ② 날씨가 더워서 물이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 ③ 다른 강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 ④ 바다 밑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2 다음은 진하기가 다른 소금 용액에 같은 크기의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1) 소금이 더 많이 용해된 소금 용액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



2) 물의 양은 변화시키지 않고, ㉠의 방울토마토를 띄우는 방법을 써보세요.

28일차 실과-간식 만들기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ㄱ, ㄷ, ㅂ, ㅅ, ㅈ’로 읽어요.

순가락 → /순까락/

붓고 /분꼬/

젓가락 /전까락/

꺾떼기 /꺾떼기/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달걀샌드위치 만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꼬마 요리사!’ 이번 주 간식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양간식, 달걀샌드위치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죠? 삶은 달걀을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고려한 최고의 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를 살펴볼까요? 달걀 4개, 오이 1개, 당근 $\frac{1}{2}$ 개, 슬라이스햄 4장, 식빵 8장, 마요네즈 2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달걀은 깨끗이 씻고 냄비에 넣은 뒤,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가열합니다. 조리용 **젓가락**으로 달걀을 굴러 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12분 정도 익힙니다. 다 익으면, 달걀을 꺼내어 3분 정도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꺾떼기**를 벗깁니다. 이제 삶은 달걀, 햄, 오이, 당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다진 뒤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립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순가락**으로 재료를 펴서 식빵 위에 펴 바른 뒤 그 위에 또 다른 식빵을 덮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습니다.

사과와 우유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29일차 사회-우리나라의 영역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이사 가요.

끝에 → /끄테/

맞아요 /마자요/

있어서 /이쨌서/

자원을 /자워늘/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 날짜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볼 수 있는 섬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주변의 바닷속에 귀중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본이 일본 땅으로 주장하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었던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독도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서는 157.5km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87.4km 정도라서 맑은 날이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도의 해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미래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청정한 바닷물인 해양 심층수가 풍부합니다.

소중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30일차 과학-세균의 종류와 특징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응/, ㄴ/은/, ㅁ/음/’으로 읽어요.

농작물 → /농장물/

한답니다 /한답니다/

합니다 /합니다/

먹는 /명는/



소리내어읽기

알맞은 속도로,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읽어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

‘세균’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나쁜 존재로만 생각하나요? 사실 세균은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랍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을 다른 말로 ‘유익균’이라고 해요. 유익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농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유익균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장에 머물면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나쁜 균의 공격을 막아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서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많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김치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유익균을 늘릴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는** 것이 좋겠지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아름다운
마음

마무리



30일 동안 읽기 여행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선생님, 친구들과 교과서 속 여러 글을 읽으며 읽기 실력을 쑥쑥 높여보았나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의 읽기 실력을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 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같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토란

커다란 토란잎을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면 넓고 커다란 토란잎을 따서 우산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토란의 높이는 80cm 안팎이고 덩이줄기로 무리를 늘려 갑니다. 잎은 타원 꼴이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열매는 맺지 않으며 8~9월쯤 노란색 꽃이 핍니다. 토란의 원산지는 열대 아시아 지방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심어 기릅니다.

토란의 덩이줄기로 토란국을 끓여 먹습니다. 토란국은 추석에 주로 먹는 명절 음식입니다. 잎자루는 토란대라고 부르는데 껍질을 벗겨서 국에 넣거나 볶아 먹습니다. 또는 말려 두었다가 먹기도 한답니다. 토란은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토란 뿌리나 토란대는 물에 담가서 독을 우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토란을 잘못 만지면 독이 올라서 살갓이 별장게 부어오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 보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읽은 “토란” 사진이에요.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토란과 닮았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년 월 일



년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 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알맹이를 시작하기 전과 후, 내 읽기 실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response.



지금까지 읽기 여행을 끝까지 마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비 이



정답



1 작지만 밝은 빛, 반딧불

16~17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예) 반딧불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서
- 2 ④
- 3 예) 시골에서 반딧불을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등



5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24~25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큐레이터 2 ④ 3 ○, ○, X
- 4 예) 방학을 주제로 방학에 만든 우리반 친구들의 작품 전시하기



2 노면 색깔 유도선

18~19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노면 색깔 유도선
- 2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3 ④
- 4 예) 운전자와 보행자는 신호를 잘 지킨다.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운전자의 눈을 바라본다. 어두운 날에 보행자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다.



6 상추 가꾸기

26~27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봄, 가을 2 ①, ③ 3 ③



3 과학자처럼 탐구해요

20~21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 X 2 ③ → ① → ⑤ → ② → ④
-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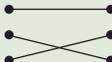


7 기행문

28~29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기억할 수 있다. / 그때의 기억을 잘 간직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여행 정보를 줄 수 있다.
- 2  3 여정, 견문, 감상



4 창문과 거울

22~23쪽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창문 2 ④
- 3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내용이면 정답으로 처리
- 4 매우 잘함 3개, 잘함 2개, 보통 1개



8 태풍을 대비해요

30~31쪽

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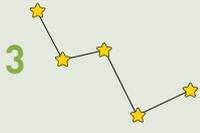
내용 파악하기

- 1 ① 2 ④ 3 기상청
- 4 예) 진달래, 나비, 까치, 수달

32~33쪽

9 카시오페이아자리 이야기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X, ○ 2 ④ 3 

40~41쪽

13 설명하는 글쓰기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②

2 믿을만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함. 출처를 표시해야 함.

3 설날에 먹는 음식 /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맛있으므로 꼭 먹어야 합니다. → 주장하는 말은 설명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34~35쪽

10 위기를 기회로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이겨 내서

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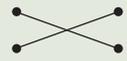
3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이면 정답으로 처리

4 매우 잘함 3개, 잘함 2개, 보통 1개

42~43쪽

14 위도와 경도
일차

내용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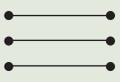
1 X, ○, ○ 2 

3 ①경, ②위, ③경, ④위

36~37쪽

11 시각이미지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 X, ○ 2 

3 뜻과 알맞게 간단한 이미지로 표현했으면 정답으로 처리

44~45쪽

15 석빙고의 비밀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 2 ①

3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냉방기를 위쪽에 설치하면 방 전체의 공기가 빨리 시원해진다.

38~39쪽

12 동물 매개 치료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펫 테라피, 애니멀 테라피

2 개, 고양이, 말, 새

3 ①, ②, ③, ④ 4 ②

46~47쪽

16 빅데이터 전문가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빅데이터 전문가 2 ②

3 

4 예) 동물번호사, 우주청소부 등.



48~49쪽

17 아동 인권 운동가, 방정환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아동 또는 어린이
- 2 ③
- 3 새로운, 높게, 억박지르지, 즐겁게, 칭찬해
- 4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담긴 말이면 정답으로 처리



56~57쪽

21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균류 2 예찬 3 ②,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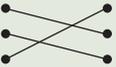


50~51쪽

18 단열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
- 2 
- 3 나무 냄비 받침, 주방 장갑



58~59쪽

22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멈춰!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예방법
- 2 ②
- 3 매우 잘함은 3개, 잘함은 2개, 보통은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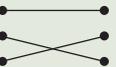


52~53쪽

19 문장 나라 두 친구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③ 2 그래서 → 왜냐하면
- 3 



60~61쪽

23 인권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인권 2 ①
- 3 



54~55쪽

20 사회 규범

일차

내용 파악하기

- 1

도덕	법
도리	국가
	강제성
양심	

 2 ③
- 3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적었으면 정답으로 처리



62~63쪽

24 행성과 별, 무엇이 다를까요?

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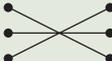
내용 파악하기

- 1 빛 2 ② 3 ④

64~65쪽

25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④ 2 

3 사용하지 않는 전자 기기 꺼놓기, 콘센트 뽑아놓기,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기 등

72~73쪽

29 독도는 우리 땅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 X

2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3 예) 우리 땅 독도입니다. 리(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아! 도둑 심보는 그만 부리십시오.

66~67쪽

26 우리나라 행정구역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광역시, 특별자치도 2 

3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 예) 인천광역시

74~75쪽

30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유익균

2 김치, 요구르트

3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서 그 수가 일정합니다.
→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서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68~69쪽

27 사해의 비밀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② 2 ㉠

3 소금을 더 넣어 녹인다.

70~71쪽

28 달걀샌드위치 만들기
일차

내용 파악하기

1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2 ④

3 ㉠, ㉡, ㉢, ㉣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미



교사용 평가 기록지

사전 평가 교사용 기록지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제목부터 글을 읽도록 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옷나무

옷나무는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르
 던 나무입니다. 주로 옷을 얻기 위해 기르는데, 옷은 옷나무 줄
 기에서 나오는 잿빛 진을 말합니다. 이 옷으로 가구나 나무 그
 릿에 칠을 하면 색이 곱고 진해지며 표면이 매끈해져서 보기 좋
 아집니다. 옷을 칠하면 열에 강해지고, 물에 젖어서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옷칠한 물건들을 칠기라고 부릅니다.

봄이 되면 옷나무에서 새순이 나와 이것을 나물로 먹기도 합
 니다. 새순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서 맛있지만, 옷나무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 옷나무를 직접 만지거나 옷이 들어간
 음식을 잘못 먹으면 피부가 붓고 따갑거나 가려워질 수 있습니
 다. 이런 증상을 '옷이 오른다' 또는 '옷탄다'라고 합니다. 이
 렇게 옷나무에는 독성이 있으니 만지거나 먹을 때는 꼭 조심해
 야 합니다.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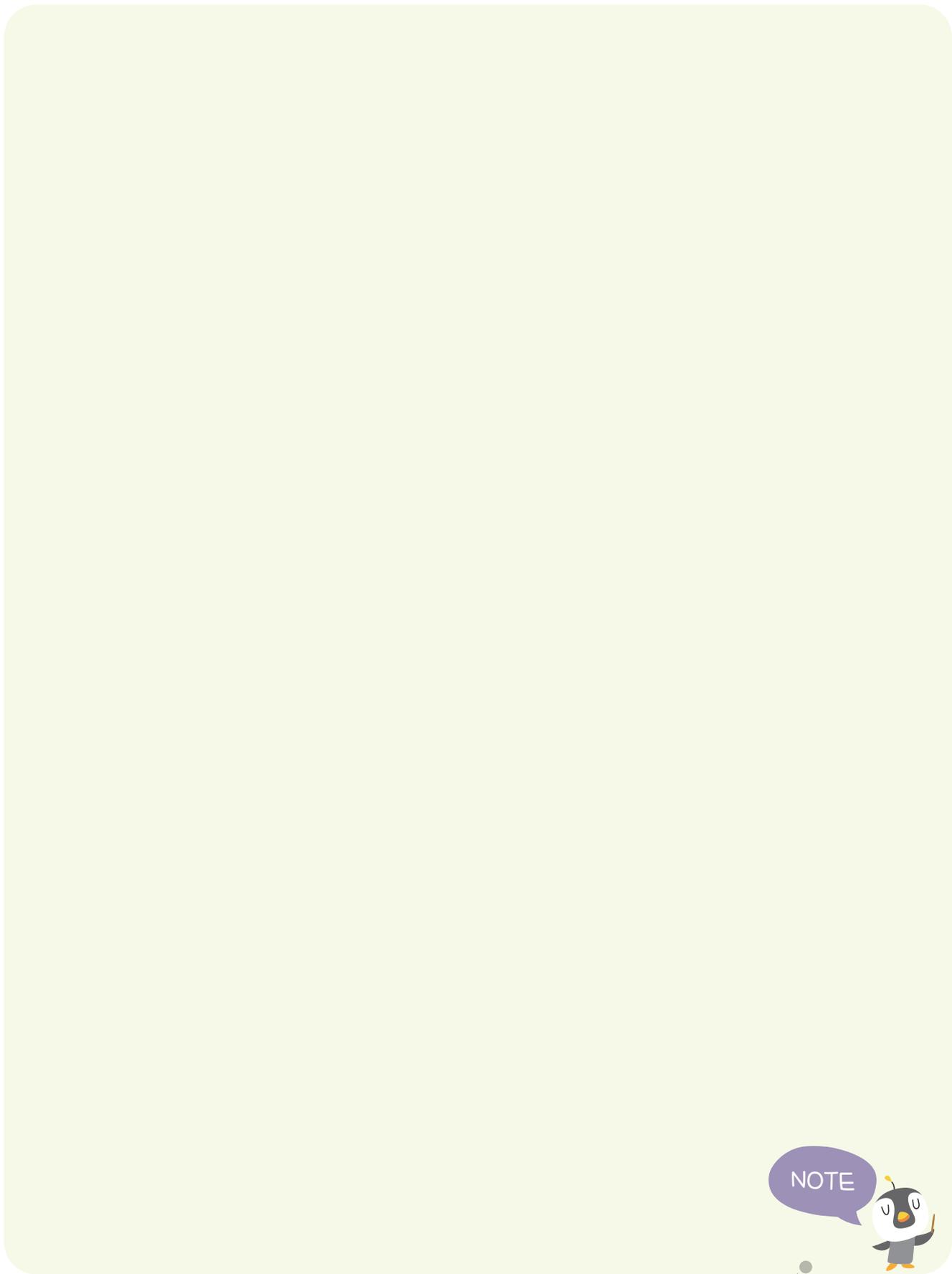
사후 평가 교사용 기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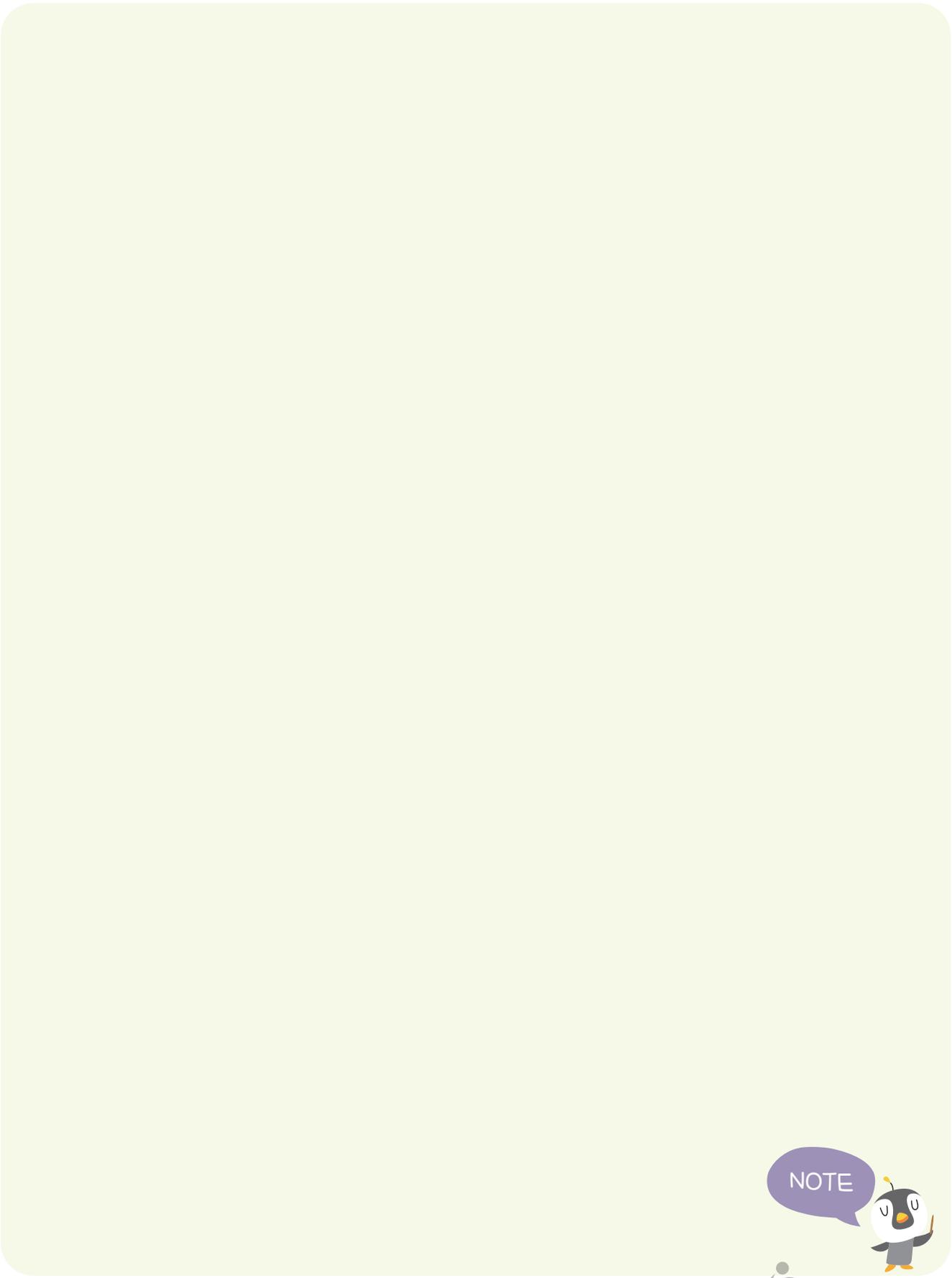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제목부터 글을 읽도록 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토란

	1
<p>커다란 토란잎을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면 넓고 커다란 토란잎을 따서 우산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토란의 높이는 80cm 안팎이고 덩이줄기로 무리를 늘려 갑니다. 잎은 타원 꼴이고 털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열매는 맺지 않으며 8~9월쯤 노란색 꽃이 핍니다. 토란의 원산지는 열대 아시아 지방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심어 기릅니다.</p> <p>토란의 덩이줄기로 토란국을 끓여 먹습니다. 토란국은 추석에 주로 먹는 명절 음식입니다. 잎자루는 토란대라고 부르는데 껍질을 벗겨서 국에 넣거나 볶아 먹습니다. 또는 말려 두었다가 먹기도 합니다. 토란은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토란 뿌리나 토란대는 물에 담가서 독을 우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토란을 잘못 만지면 독이 올라서 살갓이 별경게 부어오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p>	9 17 24 32 39 47 50 57 63 71 79 87 95 100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참고문헌

- 교육부(2023). 초등학교 국어 5학년 1학기.
교육부(2023). 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교육부(2023). 초등학교 과학 5학년 1학기.
교육부(2023). 초등학교 미술 5학년 1학기.
교육부(2023). 초등학교 실과 5학년 1학기.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가나단계 자료.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다라단계 자료.
정재석, 장현진(2014) 읽기자신감 5권. 좋은교사운동.
템북(2020) 따스함 실력편 시리즈. 템북.

읽기 유망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알맹이

총괄

김광석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기획

남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관

서희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사

집필진

김중훈 배움찬찬이 대표

주명희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사

최순영 인천경서초등학교 교사

강희주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기 열매 1

